

민주노조 사수!
노동탄압 중단!
비정규직 철폐!

2015.6.15 월요일

영결식 10:00 광양시청사거리 시민분향소

민중의례
약력보고

조사 1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사 2	강용재	광양지역문제연구소장
조무	오현숙	신명 대표
조사 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조사 4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조시	김해화	
조가	서광석	
편지낭독	허형길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유족인사	양효성	
호상인사	정용식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헌화		

노제

12:10 포스코 광양제철소 1문 앞

목념
약력보고
조사
호상인사
헌화
상징의식

심정	종용	섭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양우권

노동열사
민주노동자장

하관식 15:50 경남 남해 추모누리 공설종합묘원

평조	토사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유족인사	양효성		
호상인사	정용식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헌화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실인기업 포스코·아지테크 규탄 비정규직 철폐 양우권 노동열사 투장 대책위원회
故양우권 노동자 포스코/아지테크 인권유린 범시민 대책위원회
주관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열사 소개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

민주노총 그리고 금속노조
조합원동지 여러분 용기잃지
마시고 힘내어 가열차게 투쟁하여
저 간악한 정권과 자본을
무너뜨리고 꼭 승리하십시오.
강력한 연대와 단결로 투쟁하는
것만이 노동자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 양동운
지회장. 그리고 동지 여러분
소수의 조합원이라도 정예의
조합원들 아닙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양동운 지회장을 위시하여 뜰뜰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문제 꼭 승리하십시오
멀리서 하늘에서 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화장하여 제철소
1문앞에 뿌려 주십시오.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라도 내가
일했던곳 그렇게 가고싶었던곳.
날아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볼렵니다.

양우권 노동열사 약력

1966.5.17(음)	경남 남해 출생 (49세)
1998.2.5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주)EG테크 입사
2006.12.23	EG테크지회 설립 / 조합원
2008~2010.4	광양지역지회 쟁의부장
2010.5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G테크분회장
2015.5.9	EG그룹 체육행사에서 “노조탄압 중단” 선전
2010.5.10	7시40분경 유서 4장을 남기고 목숨으로 항거
가족	부인 하현희, 자녀 효성 주원

양우권 노동열사 투쟁 경과

5.10	살인기업 포스코 · 이지테크 규탄! 비정규직 철폐! 양우권 노동열사 투쟁대책위원회 결성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5.11	양우권 노동열사 정신계승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5.12	살인기업 포스코 · EG테크 규탄! 비정규직 철폐! 양우권 열사정신계승 투쟁승리 1차 결의대회 포스코 · EG테크에 특별교섭 요구안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코와 EG테크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죽음에 대해 책임 인정과 사죄- 노동탄압 중단 및 재발 방지 약속- 불법파견 중단 및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산업재해 인정 및 유가족 배상 광양시청사거리 시민분향소 촛불문화제 시작
5.13	포스코 교섭 참여 촉구 광양제철소 본부 앞 집회
5.15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상경 투쟁
5.20	故양우권 노동자 포스코/이지테크 인권유린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및 해결촉구 기자회견
5.21	양우권 열사정신계승 2차 결의대회
6.3	양우권 · 배재형 열사정신계승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6.9	유족 ·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집단삭발, 단식농성 돌입
6.13	노조 · 유가족 (주)EG테크와 합의

박지만에게

한마디로 당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었소. 당신은 기업가로서의 최소한의 갖추어야 할 기본조차 없는 사람이요.
당신이 기업을 아시오? 당신이 일해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소. 천만의 말씀올시다. 당신은 EG그룹의 노동자들이 없었으면 예전같이 양아치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요
그들의 피나는 노력과 땀의 결실이 없었으면 지금의 당신은 없소.
당신의 짚었을때부터 지금까지의 추악하고 더러운 악행 내가 모르는줄 아시오. 당신에 관련된 책들 많이 읽었소. 그리고 당신에 대한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 이 두꺼워 다 들었고, 듣고있소. 천별받아 마땅할 것이요.
지금 당신의 회사 현장에서는 당신의 자식들과도 같은 수 많은 노동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Roaster 주위에서 위험한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소.
당신은 그것을 알기나 하시오. 자식들 같은 직원들이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을때. 당신은 호의호식하며 지냈을 것이요. 이제라도 늦지 않소. 권력 옆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제발 당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진정 인간다운. 기업가다운 경영인이 되어 주시오.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요. 내가 하늘에서 두눈 부릅뜨고 내려다 볼 것이요.

[조사]

이제 우리가 투쟁하겠습니다

전규석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목숨을 걸고 민주노조를 지키고자 했던 양우권 열사여.

‘인간답게 살고 싶다, 차별을 중단하라’는 노동자로서 당연한 요구를 하며 노조에 가입한 지 10년, 양우권 열사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욕과 탄압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민주노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G테크분회 마지막 한 명의 조합원으로 남았던 시간은 그렇게도 노조를 지키고 싶어 했던 열사를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악질자본 포스코와 EG테크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 자리에서 일하고 싶다는 양우권 열사의 절박한 호소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양우권 열사의 죽음은 포스코를 비롯한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돈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다시 알렸습니다. 몇십 년을 일해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비참하게 겪어야 했던 차별, 노예의 삶을 끝장내고자 노동조합을 선택하면 징계, 해고, 인권유린을 겪어야 했습니다.

양우권 열사여, 새들의 먹이가 돼서라도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제철소에 열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함께 갑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열사는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씨워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홀로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민주노조의 깃발을 지키겠습니다. 열사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과 실천으로 남은 자로서 부끄러움을 떨치겠습니다.

열사는 자신의 노예로서 살기를 거부하고 당당한 노동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강력한 연대와 단결을 당부했습니다. 그리하여 간악한 자본과 정권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후손에 물려주자는 간절한 바람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해 싸우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권리를 쟁취하겠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노동조합마저 지킬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제 우리가 투쟁하겠습니다.

양우권 열사여, 외롭고 서러운 세상을 떠나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조사]

부디 편히 쉬시오 동지여

민점기 |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열사는 평소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빛내지 않았고 모양꾸며 얼굴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협박과 회유 해고 탄압에 맞서 싸울 땐 독수리의 발톱 사자의 이빨 바위로 험한 산과 같았습니다.

우린 이렇게 용맹한 동지 정의로운 용사를 잃었습니다. 저들의 악행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자비한 탄압과 인권유린에 앞장선 자들,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은 자들은 분명코 이곳 광양 땅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열사는 정직한 노동자였고 선량한 민주시민이었습니다. “효” “근본” “진실” “겸손” 이런 뜻을 아들 딸 두 손주 이름자에 새긴 사람입니다. 돈과 승진의 회유 앞에서 무릎꿇지 않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노조를, 동료 조합원과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온갖 탄압과 압력을 저지른 바지만 회장에게 마저 “제발 당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진정 인간다운 기업가다운 경영인이 되어주시오”라고 당부했던 사람... 이토록 선량한 민주시민 정직한 노동자를 우린 이제 떠나보냅니다. 어제 밤 열사가 마지막 밤을 보낸 가야산에 갔습니다. “그렇게 외로웠느냐고, 힘들었느냐고, 아팠느냐고... 말을 하지 이사람이, 고함도 치고 면살도 잡고... 나 힘들고 외롭다고 죽도록 아프다고 와치지 이사람아”하고 원망하다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밤새워 동지가 거닐었을 산책길을 걷다 걷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동지는 우뚝한 산 의로운 산이 되었습니다. 남해바다 세찬 파도로 우리들 가슴 속에 물결칩니다. 부활의 파랑새가 되어 선량한 시민들 정직하고 의로운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권동지, 이제 편히 쉬시게나. 그래도 빽빽머리 밀고 단식까지 결행한 사내하청 동지들 현장복귀 투쟁에는 같이 하셔야지? 슈퍼갑질로 지역을 분탕질하고 노동자들 괴롭히는 포스코의 잘못 그 악행은 바로 잡아야지? 함께 해주시오 우권동지, 든든하게 중심잡아주신 아내 하현희 동지, 아들 효성군 딸 주원양 동지의 뜻 잘 실천하고 이렇게 우뚝 서있네 잘 지켜 주시게.

동지가 좋아했던 글. “바람이 없으면 천지간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이슬이 없는 곳에는 열매도 볼 수 없다”는 글 다시 새기네. 투쟁의 불꽃 일으키며 기끼이 바람이 된 동지. 승리의 열매 맷으려 기끼이 이슬이 되어준 동지 본받아 우리 강력한 연대와 단결 투쟁의 폭풍우가 되고 태풍이 되어 사내하청지회 동지들의 안정적인 현장복귀를 책임지겠오. 부디 편히 쉬시오 동지여!!!

[조사]

시대의 작은 예수

강용재 | 광양지역문제연구소장

시대의 작은 예수 故양우권 노동형제를 보내며!

故양우권형제가 접하고 간 사회는 참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故양우권형제는 많은 것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땀 흘려 노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가치를 평가받고 인정받고 인정해주기를 바랬으며 누구보다도 일과 직장과 동료를 아끼고 사랑했었다는 것을 형제의 유서와 일기장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윤추구에만 급급해하는 경영진들의 왜곡된 노무관은 이성적 인간성마저도 저버리고 인격말살과 인권유린을 아무런 죄책감도 죄의식도 없이 장장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는 것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故양우권 노동형제는 대법원에서까지 (주)이지테크의 부당해고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탄압에 의해 2011년부터 3년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故양우권형제는 복직판결을 받고 2014년5월11일부터 출근을 했지만 작업현장이 아닌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사무실 구석 벽 쪽에 책상을 놓아 200일이 넘게 벽만을 바라보고 있도록 했고 사무직원들에게 말도 걸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도록 지시하고 더 나아가 대표이사는 교육평가를 한다고 부서팀장들과 둘러앉아 팬한 말꼬리를 잡아 인격적 모멸감과 의도적 면박을 일삼는 그 하루하루가 故양우권노동형제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인권유린과 탄압배후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조직안정평가라는 조항을 두고 외주파트너사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합니다.

故양우권형제는 비정규직이 처해있는 비참한 현실에 자신을 던져 희생함으로 개선시키고 인면수심에 병든 사회를 정의사회로 구하고자하는 구원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故양우권형제는 남아있는 형제들의 뜻으로 부탁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지역시민운동 원로로서 부끄럽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감시자에 역할을 자임하는 지역시민사회가 빛과 소금이란 본연에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고인과 유족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故양우권형제에 뜻 외면하지 않고 비정규직문제를 넘어 노동, 환경, 사회 전반에 조명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 나아가는 일에 형제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호상인사]

형님의 자리 비워 놓겠습니다

우기준 |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좁은 책상과 머리위의 감시카메라 앞에서의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힘든 생활. 출근하면 어느 누구도 말을 걸어오지도 않고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는 직원들. 혼자 밥을 먹어야 하고 직원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는 하루하루의 연속. 출근하자마자 퇴근시간을 기다리는 그 처절한 마음.

미안합니다. 일기장을 보고 형님의 고통과 아픔을 뒤늦게 알게 되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형님의 기나긴 사투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들의 악랄한 노동탄압, 비인간적 행위, 법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범법자들. 이제는 우리가 상대하겠습니다. 남아 있는 저희가 투쟁해서 형님의 염원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철1문 앞에서 조합원 동지들과 선전전을 진행하면 그 아프던 머리도 상쾌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의 자리는 언제든지 비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기분 상쾌함을 느껴보시고, 행복함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형님의 연대를 가슴으로 느끼며 투쟁하겠습니다. 형님,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차별이 없는 세상. 탄압이 없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에서 편히 쉬십시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강용재 광양지역문제연구소장, 이영민 광양YMCA 이사장
심종섭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윤부식 민주노총 전남본부

강필성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김진환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

박성택 범시미대책위 집행위워

국방부 감사분야의 특성과 문제

양동운 포스코사내하성시외상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문경식 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서창호 전남교육희망연대 상임대표, 강석태 범시민대책위 고문

열사장례위원회